

<동정자료>

손병석 차관, “철저한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통한 사고예방” 강조 충분한 작업시간 확보 등 안전의식 강조·현장 밀착형 추가 대책 마련 약속

-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(금),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경기도 용인시의 한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, “이번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이 안전불감증이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해줄 것”을 당부하고,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.
- 손 차관은 타워크레인 점검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점검 과정을 확인하면서, “현장에서 원청사를 비롯하여 작업 책임자, 설치·해체 작업자, 조종사 모두 작업 속도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의 안전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.”라고 강조했다.
- 이어 “향후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 시 충분한 작업시간을 확보하고, 검사기관에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검사를 통해 설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.”라고 당부했다.
- 손 차관은 “국토교통부는 2018년을 국토교통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체계적인 현장 점검과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.”라며,
 - “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‘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’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, 「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구조 개선 TF」 운영을 통해 업체 선정·계약 등 현장관리 측면에서 현장 밀착형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.”라고 말했다.

- 또한, 손 차관은 현장 점검을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타워크레인 검사기관,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 노조위원장에게 “점검 과정에서 현장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건의해 줄 것”을 주문했다.

2018. 1. 12.

국토교통부 대변인